

베일 위기에서 주민들이 지킨 느티나무



지정번호 괴산-97
지정년도 2000
관리기관 괴산
수령 960년
수고 20m
흉고둘레 8m



충북 괴산군 문광면
방성리 산 45-1
36° 44' 08.04" N
127° 47' 00.77" E



산등성이에 있는 보호수(괴산-97) 느티나무는 마을이 끝나는 해발고도 235m 정도에 자라고 있다. 느티나무가 산야에 있어서 그런지 나무 의자 및 운동 기구가 마련되어 있다. 느티나무의 나이는 960년으로 추정된다. 나무높이는 20m, 가슴높이둘레는 800cm 정도이다. 나무갓은 사방의 너비가 22m 정도이다. 원줄기는 높이 2m 정도에서 굵고 크게 3갈래로 갈라진 후 굵지 않은 가지 몇 개가 갈라졌다. 갈라진 주요 줄기는 높이 8m 정도에서 갑자기 굵기를 달리하여 여러 갈래로 갈라져 펼쳐졌다. 전승하는 이야기는 송씨 문종과 관련이 있다.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송씨 문종의 땅이었고, 그 느티나무 앞에는 조상의 묘가 있었다. 이상하게도 이 묘소 주인의 후손이 아프거나 갑자기 죽는 등의 액운이 잦았다. 어느 날 송씨 후손들은 역술인을 찾아가 물어보았다. 후손들은 역술인으로부터 조상 묘 앞에 큰 느티나무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. 그래서 문종에서는 나무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 느티나무를 베어 팔려고 하였다.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한 이후 송씨 문종 사람들은 모두 밤이면 밤마다 나무의 큰 울림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였다.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송씨 문종이 겪고 있는 상황의 그 이유를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는데, 느티나무가 서 있는 곳은 거북이 머리털로서 느티나무가 마을을 보호해야 마을에 복이 깃든다는 말을 들었다. 그런 말을 들은 마을 대표는 송씨 문종에 느티나무를 베지 말고 마을에 팔기를 거둬 권유하여 결국 마을에서 논 3마지기를 주고 느티나무를 샀다.